

The logo consists of the word "HALO" in a bold, sans-serif font, stacked twice. The top "HALO" is dark purple, and the bottom "HALO" is bright blue. Both letters have a soft, glowing white outline. The entire logo is centered within a white rectangular area, which is framed by a thin blue border and a thicker, textured blue border.

HALO
HALO

- 복작복작 10월 보고서 -

○ 목차

새 집으로? 세 집으로!

동네로, 마을로

End Poverty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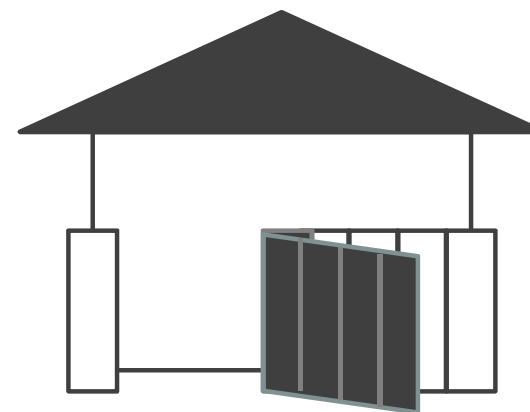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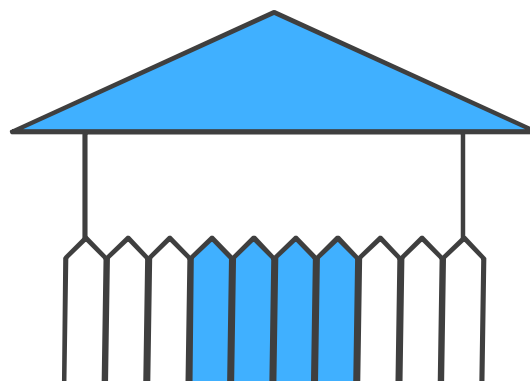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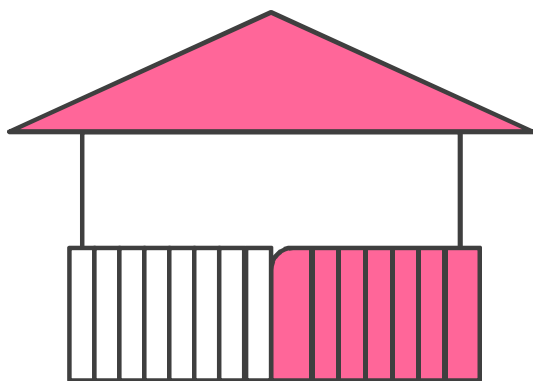
ATTI PROJECT

피드백

사진기loglog

HALO
HALO

1장. 새 집으로? 세 집으로!



01

1장새 집으로? 세 집으로!

은진(Angel) & 가형(Chloe)네 집

HALO
HALO



우당탕탕 도망갔다
CJ

엄마 껌딱지
클락



요리계의 금손
아떼 사라

너무너무착해ㅠㅠ
셸리

01

1장 새 집으로? 세 집으로! 수아(Liza)& Julie네 집

HALO
HALO

바쁘다 바빠
나나이 말나

한국이름 사랑이
둘째 알떼아

이제 8개월 순둥이
막내 아띠나

눈물 뚝뚝
여섯째 아키샤



01

1장 세 집으로? 세 집으로!
수아(Liza) & Julie네 집

HALO
HALO

자택공인 장난킹
넛째 카일(Kyle)



안...안녕..?
첫째 김(Kim)



카일 판박이 장난킹
키안(Kian)



사진좀 찍을줄 안다
켄(Ken)



01

1장

새 집으로? 세 집으로!

HALO
HALO

More Rice!!
나나이 Marina

마리엔 친구
끼안

아릭 짱친
CHLOE



3번째 나나이
성함이..

뒷집 친구
마리엔

클로이 짱친
PRINCE ARIC

02

1장 새 집으로? 세 집으로!
마을의 친구들, 아이들

HALO
HALO





남은진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눈으로 찡긍하며 전하는 감정들, 오늘 하루 어땠는지 도란도란 나누는 대화, 서로를 챙기는 식사시간까지 모두 함께 했다. 덕분에 더운 루피의 날씨도, 가끔 찾아오는 그리움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집안일을 도우며 불편함을 드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한 걸음 앞서 배려해주고 마음을 내어주는 건 늘 루피 가족들이었던 것 같다. 홈스테이가 끝나는 날까지 후회 없이,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싶다.

처음 루피 집을 봤을 때, 생각보다 열악하지 않아서 솔직히 다행이었다. 생활하기에 전혀 문제 될 것 없는 환경이었다. 9월 활동 중에 방문한 'Daet'이라는 지역에 있는 바닷가의 확장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루피에 오기 전, 최고 수준의 열악함을 상상했었다. 하지만 날씨만 제외하면 모든 것이 좋다. 마을 사람들도 친절하고 활동적인 마을이다. 상상하고 온 것이 무색할 만큼 첫날부터 너무 잘 지냈고 지금도 잘 생활하고 있다.

손민우



류가형

먹고, 자고, 쉬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에 있는 새로운 사람들과 살아가는 생활에 적응해야 했다.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음식과 더위였다.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받아들이야 했고, 홈스테이 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나름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권수아

4인 가족의 집에서 갑자기 9인 가족의 집으로 가다니, 사실 처음에 7명의 자녀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걱정덩어리였다. 하지만 기우였던 것 같다. 일어나자마자 아키샤와 이를 닦고 오후에는 카일, 키안과 투닥투닥 놀다가 저녁에는 알페아와 줄리하고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일상이 2주를 지나니 특별한 하루하루의 이야기가 되었다. 루피에 들어갈 때마다 만나길 기다리게 된 것이 루피에 애정을 더 갖게 해주는 것 같다. 앞으로의 홈스테이동안 김과도 더 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김민수

밴쿠버에서 필리핀 가족들과의 홈스테이 그리고 루피에서의 홈스테이를 해보면서 각기 다른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나를 언제나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것은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 또한, 그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아들과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은 나의 마음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단지 밴쿠버에서 가족들과 헤어질 때 느꼈던 아쉬움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11월에는 좀 더 아들처럼 친구처럼 지내야겠다.

2장. 마을로, 동네로





가파이에 있는비콜의 특산품 필리넷 관련
식품을 제작하는 공장에 가서 설명을
들었다.



지역주민들이 휴가로 자주 가는 웨이크보
드장에갔다. 늦은 시간이었어서 체험은 못
해보았지만 시범을 보았다.

루피 시장님과 만
남다목적 운동센터 탐
방

비스타몰 방문



동네 빵집 가기

02

2장 마을로, 동네로
NAGA 또, 잘 먹었다

HALO
HALO

SHAWARMA
1+1



고기샐
포치구이



부코주스
+
트리플케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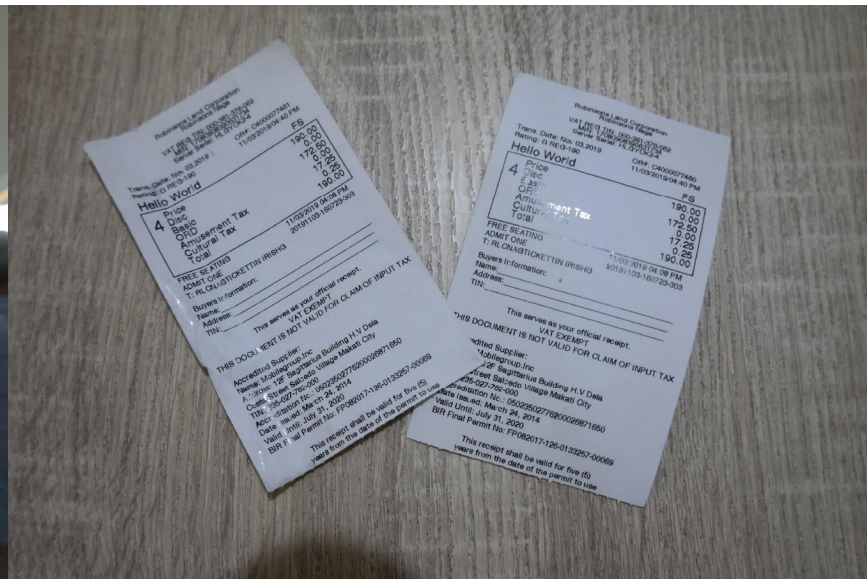


영화관에서
먹방찍기





조커 (2019)



헬로월드 (2019)

해@포터 시리즈 메이@러너 도깨@ 뷰티인@이드 오만과편@ 미스유올@디 배드지@어스 시카리@ 빅히어@



루피에서의 우리의 주 일정은 LUPi day care center 수업 보조였다.
4~5세의 아이들로 구성된 두 반에서 아이들이 글씨 쓰는 것을 도와주거나,
쉬는시간과 간식시간에 온 힘을 다해 같이 놀아주는 것이 우리의 일!



HALO
HALO





권수아

visitor으로써 아이들이 먼저 뛰어나와줬을 때 드디어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반가웠다. 손만 조금 뻗어도 까르륵웃고 도망가다가도 다시 뒤돌아 퍽!하고 안기는 아이들을 보면 대화가 인통하면 뭐 어때 잘 놀기만 하면 되지!! 싶어서 날이 갈수록 아이들 걱정보다는 내 체력만 걱정하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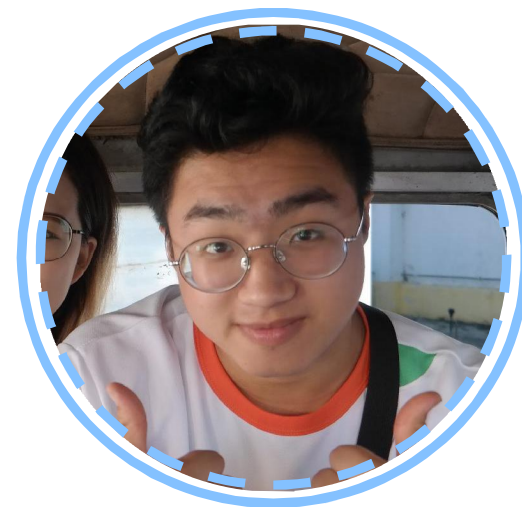
데이케어센터에서는 우리 팀이 주도적으로 수업하기 위한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2시간 정도 센터에 있으면 2시간 모두 선생님들의 수업시간이다. 당장 우리 팀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 옆에서 글 쓰는 것 도와주는 것과 쉬는 시간에 맘나게 놀아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아이들과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말 즐겁게 놀아준다. 다만, 우리가 정말 수업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의 집중력을 흐리는 것 아닌지가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다.

손민우



김민수

나는 아이들이 담임선생님의 가르침이나 우리들의 도움에 덜 집중하거나 갑자기 교실 밖으로 나가면 힘들어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같이 웃음꽃이 만개하기만 하면 힘들었던 것들이 잊혔다. 순수한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배시시 웃음이 터져버렸다. 그런 나의 웃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다시 웃어 버렸다. 우리는 웃음으로, 나와 너에서 우리가 되며 인종과 나이와 언어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었다. 오늘도 순수하게 함께 웃어 한 송이의 웃음꽃을 피워냈다. 그리고 나는 데에케어센터를 백만 송이의 꽃으로 꾸미고 싶어졌다.



남은진

아이들이 와르르 달려올 때면 행복하면서도 집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진다. 발로 차는 아이들도 있는데 귀여우니까 봐줬다.

수업 때 글씨를 쓰지 않는 아이들을 보고 집중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점선을 그려주니 금세 딱라 쓰기 시작했다. 진작 이렇게 도와줄 걸 미안해졌다.





류가형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것이 선부른 판단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필을 잡고 글씨를 쓰기보다는 함께 몸으로 놀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너무 당연했다. 오히려 친해진 이후 아이들의 공부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3장. End Poverty, 직업 멘토링



상황 분석1



우리가 생각하는 LUP의 빈곤
물의 빈곤, 정보의 빈곤,
직업 다양성의 빈곤 등

상황 분석2



바라가이 청년담당자와
이야기 나누기

상황 분석3



캠페인의 내용 선택하기



정보의 빈곤과 직업 다양성의 빈곤을 합쳐서루피의 youth들을 대상으로,
특히 정보가 부족한 out of school을 주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자!



Out of School을 대상으로하자



Out of School 컨택이 어려움



더 다양한 기회를 위해 학생들과 함께 준비하자
단, 학교 이야기가 위주가 아니도록 주의하자!

멘토링을 시작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비용의 어려움,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 대한 어려움,
멘토링의 연설자를 찾는 어려움 등등 많은 산이 있었지만
YMCA와 SK체어맨의 도움으로 많은 친구들과 성공적으로
피드백까지 끝마칠 수 있었다.

3장 - END POVERTY 직업 멘토링 고마운 친구들, 수료식



총 12일 26명의 친구들 19일 21명의 친구들이 함께 해주었다! 모두들 너무 고마워요!!



류가형

루피 지역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팀 활동이었다. 캠페인 준비 및 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 지역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완성될 수 없었다. 그러나 지역과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잘못된 이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반성하기도 했던 캠페인이었다.

End Poverty 캠페인은 처음 루피 사람들과 같이해본 일이었다. 루피 사람들과 Poverty에 관해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그들이 생각한 End Poverty를 들어보면서 그들의 사고와 이야기를 공유하고 소통해 정말 좋았다.

루피에서 처음 진행해본 캠페인이라 생각해내지 못했던 부분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아쉬운 부분도 있었으나, 역시 처음이라 인상 깊었던 캠페인이기도 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다음 프로젝트나 캠페인은 미리미리 준비하기로 마음먹었고, 루피 사람들과 동행하며 우리가 앞서가거나 뒤쳐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알았다.

김민수



손민우

End Poverty 캠페인은 우리 팀, 코디네이터, Youth 회장, 학교 선생님이 2주 정도 지속적인 회의와 소통을 통해 진행됐던 캠페인이었다. 캠페인 참여자도 예상보다 많았고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지만 아쉬움이 드는 활동이다. 원래 주 대상이었던 Out Of School 청소년들의 Poverty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 또한, 그들에게 경제적 빈곤이 아닌 다른 분야의 빈곤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도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서 꼼꼼한 지역조사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느낄 수 있었다.



권수아

시흥부터 루피까지 지역에 방문한 우리가 지역에 온지 얼마 안되어 문제를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라, 하는 내내 고민이 많았었다. 그래도 주민과 이야기를 더 할수록 팀원들과 나눔 후에 이야기를 나눌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 같다. 참석해준 친구들, 아페 알레나도 학생들도 너무너무 고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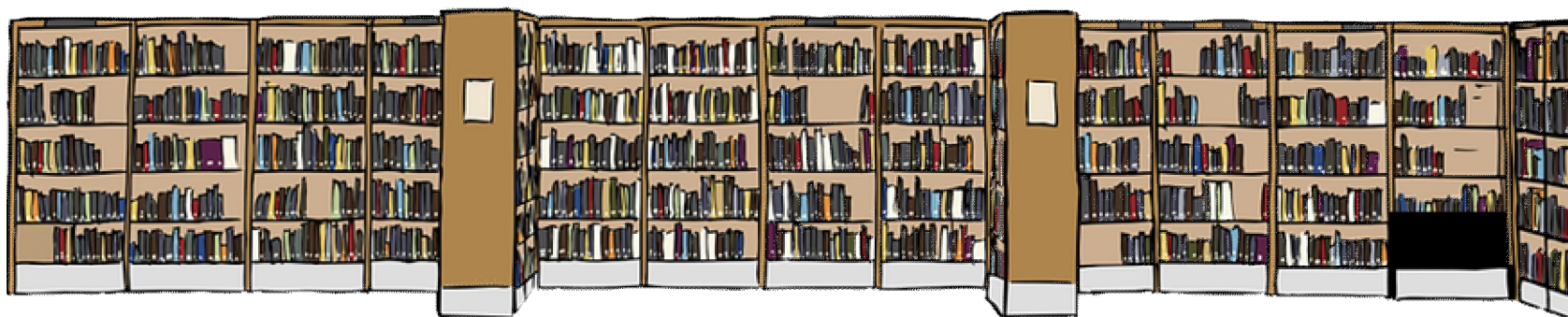


남은진

'we are nothing!'을 외치며 시작했던 캠페인이었다. 코디네이터 말처럼 'you're everything'파진 아니더라도 nothing은 아니게 됐다. 현지 코디, 봉사자, ymca 사람들, barangay lupi, sk chairman, lupi national high school까지 함께 소통하고 만들었다는 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직접수혜자의 기대와 라온아띠의 방향성과 다를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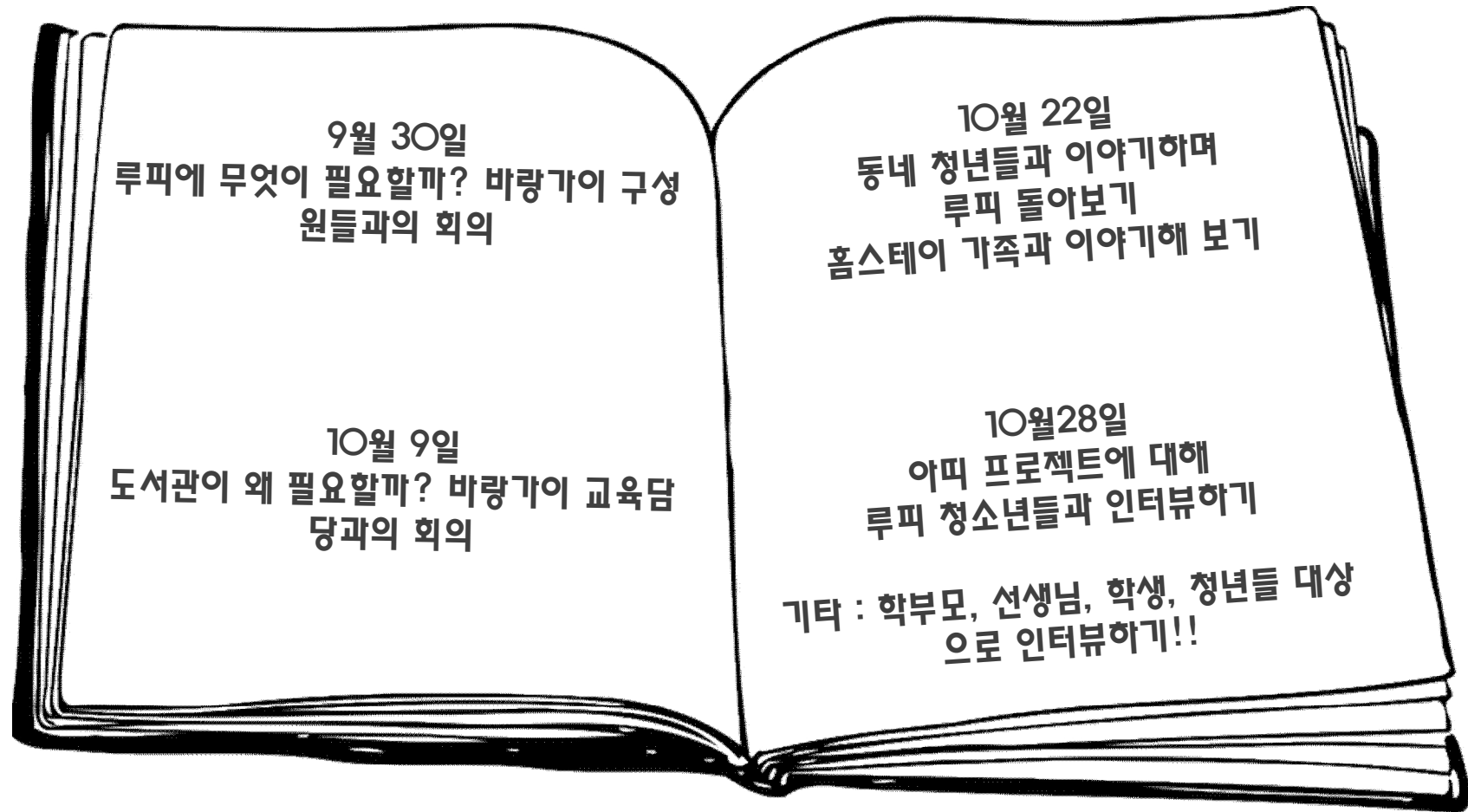
4장. ATTI PROJECT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3장 - END POVERTY 직업 멘토링 준비를 위한 일정정리!

HALO
HA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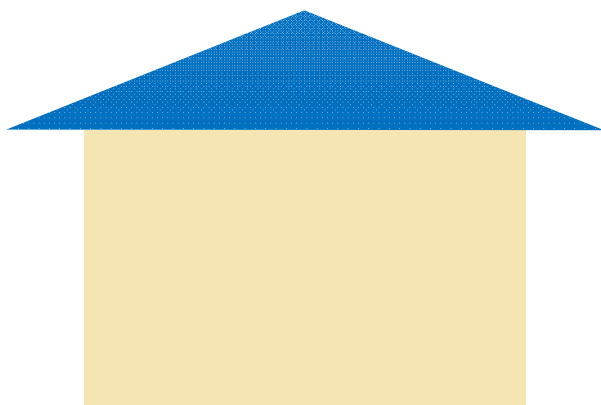


아띠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우리는 홈스테이를 하는 루피를 중심으로 계획해야했기 때문에 일정도 많이 신경 써야했고, 생활한지 1주정도 만에 마을에서 많은 것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주민들과 이야기를 듣고 나누었다.

특히 필리핀의 지방자치단체 바랑가이에서 많은 회의와 캄수르YMCA, 할로할로 팀끼리의 회의까지를 통해 아띠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과정 속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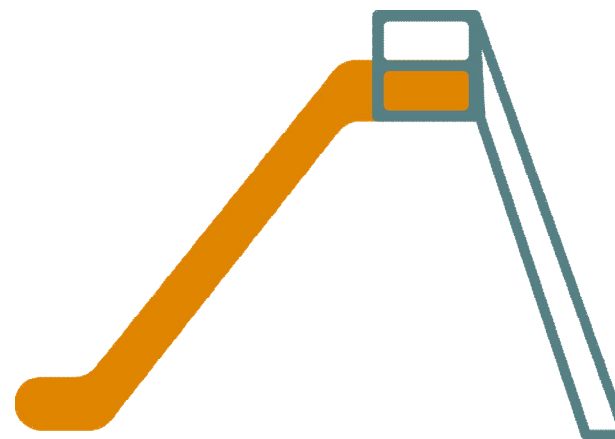
또한 바랑가이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싶다는 생각이 있어 길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말을 거는 등 최대한 여러 사람과 만나도록 했다.

루피 도서관



루피에는 근처에 도서관이 없고
인터넷도 잘 터지지않는다

어린이 놀이터



데이케어센터의 아이들이 차도로 뛰어
나와 놀아서 위험하다



회의 결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4장 -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ATTI PROJECT 같이보이지만 다 다른, N번의 회의 (n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Education 담당자와 회의



바랑가이 루피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교육부분의 담당자와 만나 루피의 사람들의 생각을 주로 들어보았다.

바랑가이 캡틴과 회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바랑가이 캡틴과 바랑가이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루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이야기해 보았고, 프로젝트에 대해 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랑가이 폴리스와 회의



프로젝트로 사용 할 다목적홀은 바랑가이 폴리스의 오피스로 사용할 계획도 있었기에 폴리스와 만나서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데이케어 센터 학부모 등 설문하기



지역 청년, 학생 등 인터뷰하기

어린 아이들의 학부모,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
바랑가이 오피스 등 최대한 많은 사람과 소통했다!

천장이 무너져 전선
이 제멋대로 아래로
늘어져있다.



유리창은 다 깨져
포스터로 가려서
쓰고있었고,



타일은 깨지고
없어져 있었다.



안에는 쓰레기와
안쓰는 물품이
쌓여있었다..



4장 -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ATTI PROJECT 자재를 찾으러 바다로 갈까나~

HALO
HALO

한정된 돈! 도서관에
들어갈 책을 찾아라
구세주 중고책서점!!



기둥과 서재에 사용
할 나무기둥 찾아~
산넘어 산



기부받은 책 분류하기
ymca최고!

타일, 천장, 벽을 위해
하드웨어점 왕복 nn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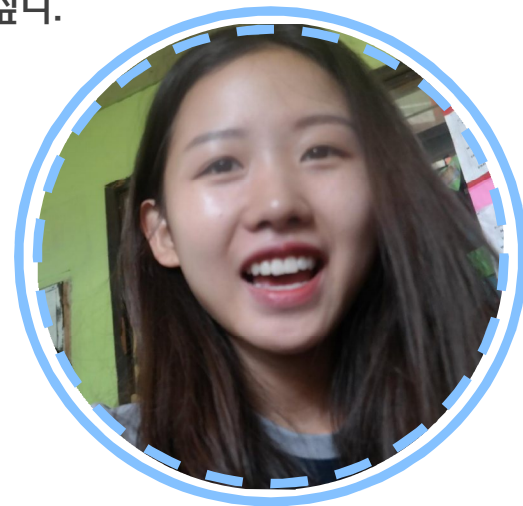
남은진

정말 워드문서로 바탕화면을 꽉 채울 정도의 회의, 지역 주민과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마쳤고 '도서관 만들기'라는 가제의 프로젝트가 탄생했다. 주민분들과 소통하며 고맙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었는데 가져주시는 관심과 참여와 애정에 오히려 더 많이 감사했고 감동했다. 작은 마을이기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월했던 부분도 있었고, 전자상거래가 활발하지 않기에 품이 많이 들어 힘든 부분도 있었다. 끝나고 나니 모든 게 다 추억이고 예쁘게 기억된다.

모두의 기대가 가득 담긴 만큼 얼른 컨펌 받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 싶다.

류가형

가장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많이 쏟은 활동이었다. 프로포절을 작성하기 이전의 준비단계부터, 계획서 양식 하나하나를 채워나가던 모든 과정들에는 나름의 고민이 있었고, 머리가 아프기도 했다. 그래도 과정 하나하나에서 루피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려 노력했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었기에 나는 그 시간들이 가치 있게 느껴지고, 프로젝트에 더욱 애착이 간다.



권수아

바랑가이 사람들과 모두 인사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다. 그만큼 프로젝트 진행 중에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소통을 한 것 같다. 한창 더운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해도 물건을 찾으러 몇 번씩 같은 가게를 가도 함께 일하고 나가고 하는 일이 즐거워서 힘들때에도 좋았다. 견적을 이렇게 찾아본 것도 처음이고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한다는 생각에 걱정도 있지만 아직은 기대가 더 앞서는 것 같다.



김민수

나는 루피 사람들에게 그저 일회성 선물을 선사하는 것이 아닌 루피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멋진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다. 도서관이라는 경험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루피 사람들이 스스로 좀 더 건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프로젝트준비를 마쳤다. 아직 공사를 시작하거나 책을 구비하지 않았지만, 벌써 긴장되고 걱정스러웠다. 그래도 우리와 루피 사람들뿐만 아니라 코디네이터와 YMCA 사람들, 다 같이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잘 마무리하리라 믿고 있다.





손민우

Atti Project를 정할 시기가 됐을 때,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되는지 약간의 고민이 있었다. 시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도 거의 생활한 지 3주가 될 때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루피에도 3주를 생활했지만, 한국과 워낙 다른 환경이라 지역을 잘 안다고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계획서를 써야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프로젝트의 보편성이었다. 지역주민들이 연령대와 상관없이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프로젝트 계획과정에서 현지 코디네이터와 봉사자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했다. 바랑가이와 회의를 잡거나 설문지, 인터뷰, 예산을 작성하기 위한 시장조사와 가격비교를 할 때 그들의 도움이 필수적이었다. 갔던 장소를 연달아 가거나 다시 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코디네이터들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함께 해주었다. 프로젝트 진행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우리 팀의 코디네이터, YMCA 멤버들에게 감사하다.

우리의 도서관, 어찌 될 것인가...!



To be continue...

Q

필리핀의 요리가 입에 맞지 않을 때가 있다.

A

현지 코디는 반찬이 맞지 않으면 바꿔줄 수 있을지 각자의 가족에게 물어보라고 피드백을 주셨다.

우리는 회의 하에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대체할 수 있는 식사류를 사서 먹거나 미리 사서 가기로 했다.

Q

홈스테이를 하는 집에 식사에 대한 비용을 드려야 하는데 비용이 확정되지 않아서 책정하기 어렵고 비용을 집에서 받지 않으시려 한다.

A

각자의 집 사정에 맞춰서 첫 주에 반찬가격을 확인하고 맞춰서 드리거나, 요리하시기 편하신 금액을 정해서 드리고,
식사 재료를 사러 나가실 때 함께 나가서 계산하고 함께 만드는 등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서 맞는 비용과 생활을 함께 해나가려고 한다.

Q

집을 비운 사이 집이 더러워지고, 사전에 정했던 청소표가 의미가 없어졌다.

A

청소 구역의 분류가 어려웠고, 루피를 다녀가다보니 집 청소에 대해 인식이 약해져서 새로 구역을 나누고 각자가 자신있는 청소 구역을 담당해서 한달씩 돌아가기로 했다.

05

우
리
의

사
진

1
0
월

기
L
O
G
L
O
G

HALO
HALO



05

우
리
의

사
진

1
0
월

기
로
글
로
글

HALO
HALO



05

우리의 10월 사진 기록 LOG

HALO
HALO

